

우즈도 못해 본 대기록... 살아있는 전설되다

메이저 3연승 박인비 이젠 캘린더·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세계 골프계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메이저 대회 우승은 말 그대로 생애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다. 하지만 박인비는 올해 열린 세 차례 메이저 대회를 독식하면서 세계 여자골프를 사실상 평정했다.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사우스햄프턴의 서브백 골프장에서 열린 제68회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올해 앞서 열린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을 휩쓸 때 이어 메이저 3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여자골프에서 시즌 개막 후 열린 메이저 3개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것은 1950년의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박인비가 두 번째다.

남자 골프까지 영역을 넓히면 1953년 벤 호건(미국)이 마스터스와 US오픈, 브리티시오픈을 내리 제패한 기록이 있다. 벤 호건부터 따져도 무려 60년 만에 박인비가 대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그 60년 사이에 아널드 파머,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등 '골프의 전설'들이 시즌 개막 후 메이저 3연승에 도전장을 던졌지만 모두 실패했다.

파머는 1960년에 마스터스와 US오픈에서 우승했지만 브리티시오픈에서 한 타차 2위에 머물러 개막 후 메이저 3연승에 실패했다. 또 니클라우스는 1972년에 마스터스, US오픈을 차례로 제패한 뒤 브리티시오픈까지 노렸지만 리 트레비노에게 역시 1타 뒤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우즈는 메이저 4연승을 한 기록이 있다. 2000년 US오픈부터 2001년 마스터스까지 메이저대회를 휩쓸어 '타이거 슬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하의 우즈도 시즌 개막 후 메이저 3연승은 이뤄내지 못했다.

여자골프에서는 팻 브래들리(미국)가 1986년에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LPGA 챔피언십을 석권하고 US여자오픈에 나섰지만 1라운드에서 76타를 치는 부진 끝에 공동 5위에 머물렀다. 브래들리는 그해 뒤돌리에 클라식에서 우승해 한 해 메이저 3승을 달성했다. 여자골프에서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기록한 최근 사례가 바로 박인비 이전에 브래들리였다. 소렌스탐도 이루지 못했다.

개막 후 3연승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캘린더 그랜드 슬램'에 대한 가능성 때문이다.

이제 전 세계 골프팬들의 관심은 올해 남은 두 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박인비가 승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에 쏠리게 됐다.

여자골프에 메이저 대회는 지난까지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 등 4개였지만 올해부터 예비항 마스터스가 추가됐다.

박인비는 이 가운데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만 우승하지 못했다. 예비항 마스터스에서는 메이저 대회로 승격하기 전인 지난해 정상에 올랐다.

"오늘 아침 엄마가 끓여준 감자국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박인비는 우승 비결을 묻자 어머니 김성자(50)씨가 마련해준 한국음식 덕분이었다

▲캘린더(calender) 그랜드슬램= 한 시즌에 4대 메이저대회 석권.
 ▲커리어(career) 그랜드슬램= 평생 생애 걸쳐 4대 메이저대회 제패

며 웃음 지었다.

다음은 박인비 선수와의 일문일답.

-우승한 소감은.

▲아주 기쁘다. 이 자리에 서게 돼 기쁘다. 역사에 남을만한 일을 하게 돼 정말 영광이다. 오늘 온종일 플레이가 너무 좋아 기쁘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현지 언론은 '평온의 여왕'이라고 평가했는데 긴장하지는 않았나.

▲경기 초반에 약간 긴장했다. 어젯밤에도 약간 긴장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 편안했다.

-대기록에 도전한다는 생각은 했다.

▲생각 안 하려고 했다.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다.

-오늘 마지막 날 초반에 보기가 2개 있었

심리 조절 훈련 받은적 없고

코스에서는 공에만 집중

약혼자가 곁에 있어 많은 도움

올해의 선수상 꼭 받고 싶다

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았나.

▲보기를 했을 때는 정말 실망했다. 그러나 US여자오픈 골프 코스는 보기를 하도록 만들어진 코스다. 다행히 내가 보기를 했을 때 (함께라운딩한) 김인경 선수도 보기를 해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웃음)

-올해 메이저 대회를 계속 우승하고 있는데, 남은 한 대회도 우승할 수 있다고 보는가.

▲4번째(메이저) 대회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하지만 먼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4번째 메이저 대회에 출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이다.

-골프 전문가들은 박인비 선수에게 적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 스스로 세운 목표는 무엇인가.

▲일단 '올해의 선수상'을 받고 싶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 브리티시오픈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평소 골퍼인 약혼자가 많이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약혼자이기 이전에 스윙코치이고 친구다. 많은 도움이 된다. 심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한가지 정도 아쉬운 점을 꼽자면.

▲퍼팅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했다. 홀을 스치고 나간 퍼팅이 몇 개 있었다.

-외국 언론은 박인비 선수가 특별한 심리 조절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코스에서는 공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연합뉴스



박인비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사우스햄프턴의 서브백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 마지막 라운드 18번홀에서 퍼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지은 후 유소연 등 동료들의 삼매인 세례를 받고 있다. 박인비는 올 시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 이어 이날 US여자오픈까지 제패함으로써 메이저대회 3회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메이저대회 3연승은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 이후 63년만의 일이다. /연합뉴스



■ 메이저대회 3연승 박인비 프로필

박인비(25·KB금융그룹) ·출생: 1988년 07월 12일(서울) ·신장: 167cm

·주요경력

2002년	US여자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
2006년	프로전향
2008년	LPGA투어 US여자오픈골프대회 우승(메이저)
2012년	LPGA투어 사일버데비 밀레시아 우승 LPGA투어 예비항 마스터스 우승
2013년	LPGA투어 혼다 티일랜드 우승 LPGA투어 나비스코챔피언십 우승 LPGA투어 노스텍사스 숏아웃 우승 LPGA투어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우승 LPGA투어 월마트 NW이퀸스 챔피언십 우승 LPGA투어 US여자오픈 우승 (LPGA투어 통산 9승, 메이저 통산 4승)

메이저 3연승

■ LPGA투어 단일시즌 최다승 기록

13승	미카리이트(1963년)
11승	안니카소렌스탐(2002년), 미카리이트(1964년)
10승	안니카소렌스탐(2005년)
8승	로레나 오초아(2007년), 안니카 소렌스탐(2001, 2004년)
7승	칭아니(2011년), 로레나 오초아(2008년), 카브웨브(2000년)
6승	박인비(2013년 7월 현재, 메이저 3연승) 로레나 오초아(2006년) 안니카 소렌스탐(1997, 2003년) 카브웨브(1999년)
5승	박세리(2001, 2002년), 카브웨브(2006년), 안니카 소렌스탐(2000년), 줄리 잉스터(1999년)

KIA 무너진 마운드, 믿을 건 방망이

프로야구 전망대

이빨 빠진 호랑이의 힘겨운 7월이 시작됐다. 불펜과 부상의 이중고에 빠진 KIA 타이거즈가 연패탈출을 목표로 7월을 맞았다. 주중 원정경기에서 만나는 상대는 SK 와이번스, 주말에는 홈로 돌아와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벌인다.

9연승 행진 속 대반격으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6월은 상처뿐인 4연패로 끝나고 말았다. 두산전 불펜 전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양현종·이용규 '이빨빠진 호랑이' 힘겨운 7월 시작

"SK·롯데 상대 배터리를 흔들어야" 김주찬에 특명

1무1패를 기록했던 KIA는 버리고 별다른 대구원정에서 폼과 마음의 상처만 남겼다. 지난 28일 9회말 2사에서 나온 오삼에 흔들리며 올 시즌 삼성 원정 6전 전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주 선동열 감독이 불펜의 핵심으로 중용하는 신승현·송은범·앤서니가 홀드와 세이브가 아닌 패를 남겼다. 불펜

의 핵심 세 투수가 나란히 패전투수가 되면서 불펜 고민은 심화됐다. 여기에 에이스로 등극한 양현종이 9구리 부상으로 7월을 기약할 수 없게 됐고, 서둘러 복귀한 서재응도 아직 불안하기만 하다. 올 시즌에도 선동열 감독의 '지키는 야구'는 허상이 되고 말았다. 선 감독의 불펜 관리

가 실패로 끝나면서 마운드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운드 난조를 믿을 건 방망이밖에 없는 현실이다.

회복세로 KIA의 연승의 물꼬를 댔던 이용규가 무릎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김선빈이 톱타자로 나섰다. 김주찬은 3번 임무를 맡으면서 KIA를 대표하는 '발'이 나란히 섰다.

마운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이 필요한 만큼 이들의 부지런한 출루와 득점이 중요하다. 특히 부상

프로야구 중간 순위(7월 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63	38	23	2	0.623	0.0
2 넥센	65	37	27	1	0.578	2.5
3 LG	66	38	28	0	0.576	2.5
4 롯데	64	35	27	2	0.565	3.5
5 KIA	64	33	29	2	0.532	5.5
6 두산	66	33	31	2	0.516	6.5
7 SK	65	29	35	1	0.453	10.5
8 NC	66	23	40	3	0.365	16.0
9 한화	65	19	45	1	0.297	20.5

작용을 할 기록이다. 상대 배터리를 흔들 도루도 김주찬의 주요 역할이다.

김주찬은 부상으로 인한 두 달 가량의 공백에도 17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도루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타석수 상 도루 개수를 살펴보면 도루 1위 NC 김중호(27개·타율 0.305)가 10.9타석에 한번 도루를 적립했고, 김주찬(타율 0.308)은 6.2타석에 한번 도루를 기록했다. 일단 뛰고 보는 거침없는 질주다.

마운드에서는 두 차례의 등판을 소화해야 할 김진우의 어깨가 무겁다. 유일하게 안정적 활약을 해주던 양현종이 선발진에서 빠졌고, 뒤를 책임져야 할 불펜도 힘겹다. 많은 이닝 소화는 필수다.

상대는 KIA전에서 4.96의 방어율로 3전 2패를 기록하고 있는 SK 세든. 매번 세든을 울렸던 '한방'이 다시 또 가동될지도 관심사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